

제시문 가에서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사이에는 어떤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반면, 나와 다에서는 개인과 타인의 행복이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데, 나에서는 개인, 다에서는 타인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다.

제시문 가에 따르면 로마사회에서의 노예제도에 따른 신분은 개인의 운명이며 신분에 맞게 개인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개인의 역할에 충실히 임할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으며, 따라서 타인의 행복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즉 모든 개인은 타인의 행복에 상관없이 정해진 신분에 따라 소임을 다하는 것이 곧 행복이라는 것이다.

한편, 제시문 나와 다는 개인과 타인의 행복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지만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그 관점이 다르다.

제시문 나에서는 타인의 행복보다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나의 여자는 남편의 출유 선언에 자신 또한 절연을 선언하고 이제까지 남편을 섬기며 불행했던 과거를 토로한 뒤, 아픔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것이라 한다. 여기서 여자는 남편, 즉 타인의 행복보다 자신의 행복을 더 중요시 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제시문 다에서는 개인보다는 타인, 공동체의 행복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다는 공리의 원리를 들어 공동체의 행복은 개인의 행복의 총합과 같다고 말한다. 이는 한 개인의 불행이나 행복과는 상관없이 공동체의 행복도가 크다면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개인보다는 공동체, 즉 타인의 합의 행복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질문>

대애충은 맞은것같은데 모든 지원자들이 그렇겠죠.. 엄치불구하고 디테일한 침삭 부탁드립니다  
다ㅠㅠ 이번 인문 모의가 쉬웠다고 하신 글 봤어요. 저에겐 너무어려웠어요ㅠㅠ흑흑...

+질문하나 드려도 될까요? 논술 원고지에 '제시문 (가)'라고 쓸때 네모칸 하나에 괄호까지 붙여 '(가)'를 써도 되나요? 그럼 약간 낫기는?ㅋㅋ느낌이 있어서..